

2024  
고3  
11월 수능

### 2024년 시행 고3 11월 수능 국어 문학 | 정을선전 분석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#### 지문 분석

[앞부분의 줄거리]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**정렬부인**(을선의 부인이자 조왕의 딸 조씨)의 모략으로 **총렬부인**(을선의 부인이자 유 승상의 딸 추연. 을선이 어릴 때부터 사랑하던 인물)이 옥에 갇히자 시비 금섬이 총렬부인을 피신시키고 **자진**(스스로 목숨을 끊음.)한다. 옥에서 **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**(총렬부인 대신 죽음을 택한 금섬)이 발견되자 **왕비**(정을선의 어머니)는 **월매**(금섬과 함께 총렬부인에게 충성하는 시비)를 문초한다. 전장에서 정을선은 **호첩**(금섬의 오라버니)이 전한 편지를 읽는다.

**원수**(승상 정을선)가 **대경하여**(크게 놀라)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‘나는 집에 **변**(갑자기 생긴 재앙이나 괴이한 일)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.’ 하고 밤낮 삼 일 만에 득달하니 이때에 왕비의 시비 월매가 종시 **토설**(숨겼던 사실을 비로소 밝혀 말함.)치 아니하매 매를 많이 맞고 여쭙오되

“어서 바빠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.”(총렬부인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월매)

한데 왕비 크게 노하여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이때 승상이 **필마**(한 필의 말)로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하매 문왈

“총렬부인은 어디 계시냐?”

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 왈

“승상은 바빠 총렬부인을 살리소서.”

한데 승상이 급히 문왈

“어디 계시냐?”

한데 월매 울며 왈

“소인이 걷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?”

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**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**(구덩이에서 혼자 을선의 아이를 낳은 총렬부인)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. 승상이 통곡 왈

“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.”

한데 부인이 눈을 떠 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왈

[ “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**구년지수**(중국 요나라 때 9년 동안 지속된 큰 흉수)의 해 같고 **칠년대한**(은나라 탕왕 때 7년 동안 내리 계속된 큰 가뭄)의 빗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. 승상은 나의 누명을 씻겨 주소서.” ]([ ]: **고사를 인용한 것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

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. **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.**(서술자의 개입) 슬픔에 매우 아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. 승상이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새, 왕비 전에 뵈온대 왕비 못내 반기시며 **사연**(총렬부인이 다른 남자와 사통했다는 잘못된 소문)을 날날이 이르시되 승상 왈 “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.”

하며 왈

[ “처음에 **그놈**(총렬부인과 사통했다고 알려진 남자)이 총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?” ]([ ]: **정을선이 왕비에게 해당 질문을 한 의도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**)

왕비 왈

“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.”

하신대 승상이 **복록**(=사촌 오라비)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. **하릴없어**(어쩔 수 없어) 옥졸을 잡아들여 엄히 문왈

“너희는 어찌 총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? 바로 아뢰라.”

하신대 옥졸이 급히 여쭙오되

“얼굴이 상하여 아모란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총렬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올 제 정렬부인의 시비 **금연**(정렬부인의 악행을 도운 시비)이 이를 듣고 문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,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.”

한데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왈

“이 말을 듣고 네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.”

하는 소리가 **벼락이 꼭두에 입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하더라**.(과장법) 이때에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. 금연이 하릴없어 바로 아뢰나니라 하고 정렬부인 하던 말이며 **제가 남복을 하고 총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**(금연이 남장을 하고 총렬부인의 방으로 들어가 잘못된 소문을 의도적으로 야기함. **‘그놈’의 정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**.)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사오매 총렬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시매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시매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를 낱낱이 아뢴대 왕비 곁에 있다가 양천통곡하시며 왈

“내 밝지 못하여 **악녀**(=정렬부인)의 꾀에 빠져 총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**무슨 면목으로 총렬부인을 보리오**.(총렬부인에 대한 말이 오해였음을 알게 된 왕비. **왕비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**.)”

하시며 자결코자 하거늘 승상이 붙들고 울며 왈

“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.”

왕비 금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라. 승상이 정렬부인을 결박하여 땅에 꿇리고 크게 노하여 왈

“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총렬부인을 해코자 하느냐. 어찌 일시를 살리리오.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으나 **황상**(중국 황제. 천자)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.”

하고 **상소**(임금에게 글을 올림. 또는 그 글)하니 그 글에 하였으되

“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수백배하고 아뢰나니 신이 서응을 쳐 사로잡고, 백성을 **진무**(난리를 일으킨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어루만져 달랠.)하고 돌아오려 할 때,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우고 필마로 올라와 본즉, **정렬부인이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**(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) 세상에 이러하온 일이 있사오닛가.”

하고 금연이 흥계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낱낱이 아뢰었다.

- 작자 미상, 「정을선전」

## 핵심 정리

- 갈래: 국문 소설, 가정 소설
- 성격: 전기적(傳奇的), 일대기적
- 주제: 유추연의 계모 노씨와 정을선의 정렬부인 조씨로 인해 발생한 가정의 위기와 권선징악
- 특징
  -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초반은 남녀 주인공들의 결연, 중반은 계모와의 갈등, 후반은 남편을 둘러싼 아내들의 쟁의로 구성됨.
  -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정서를 드러냄.

## 전체 줄거리

중국 송나라 때 정 승상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아들 을선을 얻고 정 승상의 친구인 유승상은 딸 추연을 얻는다. 유승상의 부인은 추연을 낳고 삼 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, 후실로 들어온 노씨는 추연을 박대한다.